

혐오표현은 왜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승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박사)

한국사회에서의 혐오와 차별

- 2013년 전후 인터넷커뮤니티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남혐 대 여혐 논란 확산
- 공공영역과 오프라인으로 확대. 집회, 단체, 정당, 공인의 혐오표현 확산
- '혐오표현' 범주에 대한 논쟁: 난민/이주민/성적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여성혐오표현, 장애에 기한 혐오표현. Cf.지역, 연령, 정치적 사상



뉴스1



국민대학국민운동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중도구 동묘타위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와 가짜난민 추방 결의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각장애인들 무료 침술로 '님비현상' 극복>

입력 2005.06.25. 오후 2:54

공감 댓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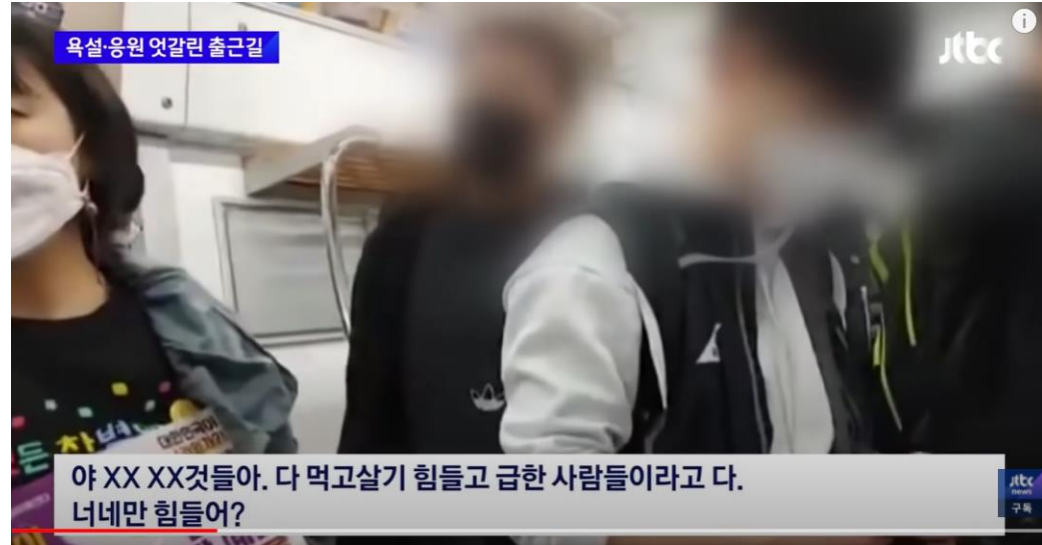
🔊 🔊 🗣️ 📄 📄



"시원하시죠?"(자료사진)

교육관 설립 반대 주민들 하루 50명씩 줄서서 치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1035760?sid=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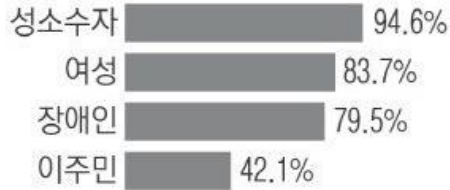
<https://www.youtube.com/watch?v=5Ec6n3uH4y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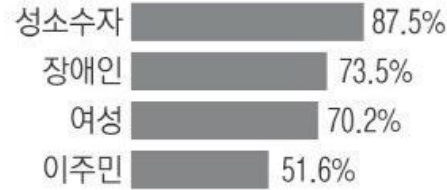
<https://www.youtube.com/watch?v=yS-h8FAQFjs>



집단별 온라인 혐오표현 피해 경험률



집단별 오프라인 혐오표현 피해 경험률



혐오표현 유형별 사례들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괴롭힘

"장애인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치마를 들어올린 중학교 시절 남학생들 - 발달장애인 여성
국적을 확인하더니 "남편이 밤에 잘 해주냐"고 묻는 택시기사 - 이주민 여성

차별 표시

'역겹다' '더럽다'는 같은 학교 학생들의 블로그 댓글 - 게이
'같이 살 수 없는 존재, 위험한 존재'라는 장애인 발달시설 건립 반대 현수막 - 지체장애인

멸시·모욕·위협

"왜 아이가 가난한 네 나라 말을 배워야 하나"는 시댁 식구들 - 이주민 여성
"얼굴이 착하게 생겼고 말투가 조곤조곤해 남자들이 순종적인 여자로 본 것 같다"는 스토킹 피해 조사 중의 경찰 -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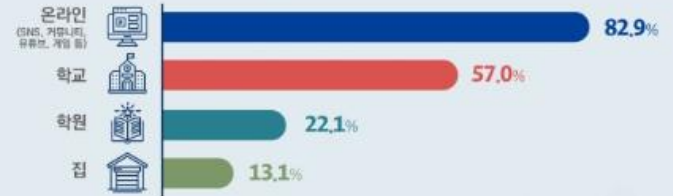
증오 선동

'동성애를 하지 말라'는 성경 인용 학교 게시물 - 청소년 성소수자
'이슬람 확산은 한국 안보에 치명타'라는 정당 현수막 - 이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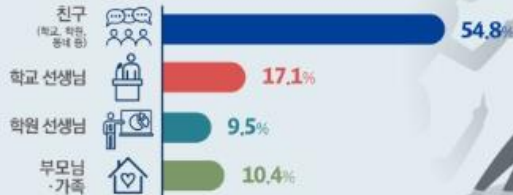
청소년의 혐오표현 경험 - 장소, 주체별

혐오표현을 접한 청소년의 82.9%가 SNS나 커뮤니티, 유튜브, 게임 등 온라인에서 혐오표현을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학교(57.0%)에서, 친구(54.8%)로부터 혐오표현을 경험하고, 혐오표현 사용자가 학교 선생님인 경우도 17.1%였습니다.

장소별 혐오표현 경험 빈도



주체별 혐오표현 경험 빈도



※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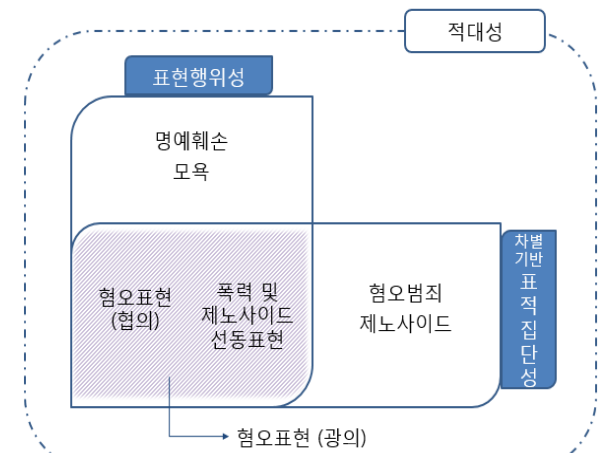
국가인권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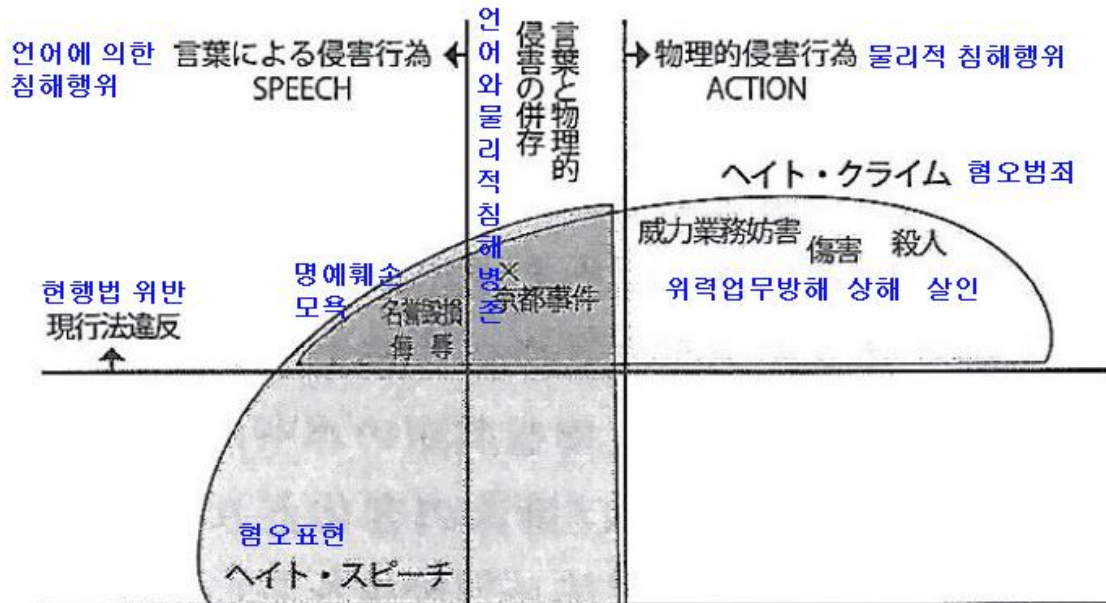
-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국가인권위원회 2016년 연구용역보고서), 혐오표현 예방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18년 연구용역보고서)
- 주요 표적집단 응답자들은 대체로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한 비난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그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한 범죄 피해를 우려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온라인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목격한 경험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 (cf. 이주민). 오프라인에서 혐오표현을 목격한 경험은 온라인보다는 낮았지만 대체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혐오표현 피해 경험에 비하여 가해 경험은 매우 낮게 나타남

❖ 들어가기에 앞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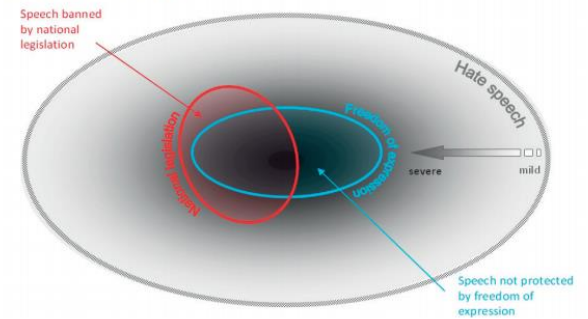
- 우리 사회가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혐오표현은 무엇인가?
- 혐오표현의 강학상 개념 정의
- 국가 및 시민사회가 대응해야 하는 혐오표현
- 법적 규제(민사/형사/행정적 규제)가 필요한 혐오표현
- 국내법상 법적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혐오표현



이승현, 혐오표현(hate speech)에 대한 헌법적 고찰,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p. 10



The boundaries of hate speech



金尚均, 헤이트스피치와 헤이트클라임의 법적인 논의, 법학 세미나 2015년 7월호 통권 726호(1特集1)헤이트스피치 / 헤이트클라임-민족差別被害의防止と救済, 2015, p.35.

Dr. Gavan Titley, Ellic Keen, László Földi, Starting Points For Combating Hate Speech Online, council of Europe, 2015, p.25.

51. Adopted by the Committee of Ministers of the Council of Europe on 30 October 1997 at the 607th meeting of the Ministers' Deputies.

혐오표현의 개념과 배경

- 개념:**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게, ①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② 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 (혐오표현 리포트, 2019)
 - 해당 집단에 대한 차별은 변화 불가능한 인격적 구성요소로서의 속성을 이유로 혹은 전제로 하여 일어나는 것으로서 일시적인 차별대상이 아니라 해당 표적집단에게 장기간 축적되어 지배적인 관념으로 고착된 편견과 차별의식에 기인
 - 혐오표현 규제 의 등장배경
 -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후 인종차별의 극단적인 형태인 집단학살의 경험에 대한 반성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와 유럽국가들의 대응 ex.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 1960년대 미국 민권운동, 정치적 올바름 운동과 함께 인종차별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나아가 다른 소수자차별 문제제기로 확대



<https://www.coe.int/en/web/no-hate-campaign>

11 May 2020

UNITED NATIONS GUIDANCE NOTE ON ADDRESSING AND COUNTERING COVID-19 RELATED HATE SPEECH

On 11 May 2020, the Special Adviser on the Prevention of Genocide released a 'Guidance Note on Addressing and Countering COVID-19 related Hate Speech.' The guidance note follows the Secretary-General's global appeal to address and counter hate speech on 8 May 2020 and builds on the UN Strategy and Plan of Action on Hate Speech. It provides recommendations to Member States, civil society, media and other relevant stakeholders for addressing and countering COVID-19-related hate speech.

<https://www.coe.int/en/web/no-hate-campa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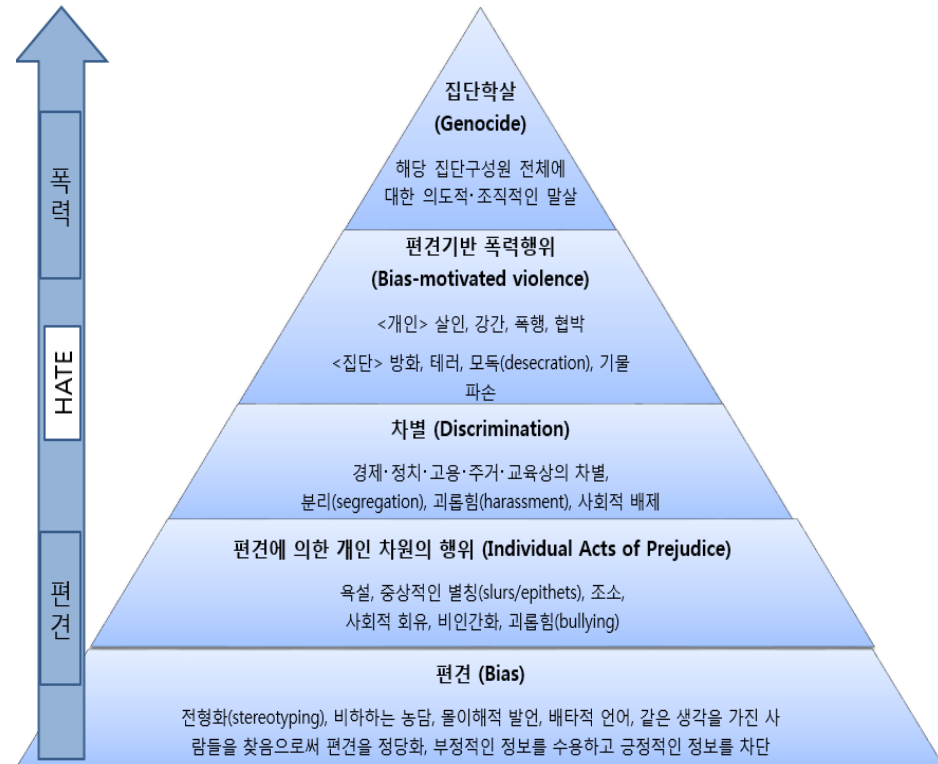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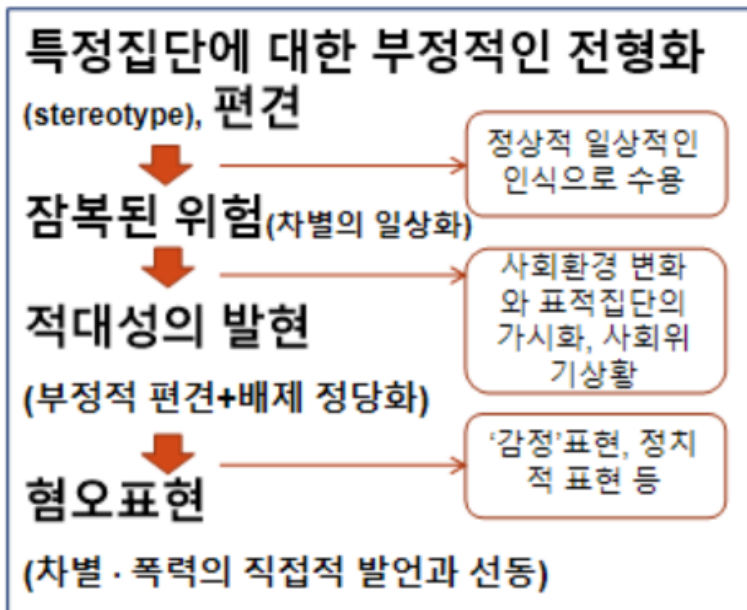
유형	내용
차별적 괴롭힘	차별적 속성을 이유로 소수자(개인/집단)에게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차별표시	차별·혐오를 의도·암시하는 내용의 표현행위
공개적인 멸시·모욕·위협	공개적으로 소수자(개인/집단)를 멸시·모욕·위협하여 인간존엄성을 침해하는 표현행위
증오선동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조장·선동하는 증오 고취 행위

혐오표현의 유형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국가인권위 연구용역 2016)

편견, 차별, 혐오의 관계



{Artifact 37}





<https://www.usatoday.com/story/news/2017/08/11/charlottesville-braces-itself-yet-another-white-nationalist-rally-saturday/560829001/>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5/oct/28/no-reason-to-doubt-no-irish-no-blacks-signs>

<https://www.history.com/topics/black-history/civil-rights-movement>



© Richard Sandler
Bigotry: A man speaks at an anti-gay demonstration on Sixth Avenue in 1989. New York legal



<https://www.usatoday.com/story/news/2017/08/11/charlottesville-braces-itself-yet-another-white-nationalist-rally-saturday/560829001/>



<https://brewminate.com/an-analysis-of-the-techniques-of-nazi-propaganda/>



자신들은 (외국인에게) 뭔가 빼앗긴 피해자라면서 분노를 터뜨리는 겁니다.

8 NEWS 사회 태풍보다 무서운 폭염... 10년간 사망자 더 많아



혐한시위 피해구제 신청자

아이들과 부모들 앞에서 '죽어라' '죽여라'라고 하는데, 절대 익숙해지지 않아요.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무서워요. 더 표적이 되지 않을까...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0155.html



"우리나라에 인종차별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며, 외국인에게 자국민에게 부여하지 않는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다. 이미 공무원 시험, 공공주택 분양, 대학 입학, 결혼, 출산, 보육에 있어서 많은 특혜가 주어지고 있다. 동성 간 성행위가 주요 감염 경로로 밝혀진 에이즈 환자들에게는 (1인당) 연간 1천만원이 넘는 치료비 전액이 국민의 혈세로 부담되고 있다. 이런 특혜가 왜 그들에게만 주어져야 하는가... 이는 정상적 인권개념이 아니며, 인권을 빙자한 사이비인권 불과하다. 무조건 소수이기에 보호받고 특혜를 받아야 한다는 건 민주사회원칙에 어긋나며, 전체주의적 광신주의"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2734>

"서구를 중심으로 동성애를 지지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져서 동성애 독재가 퍼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담대한 신자들은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당당하게 말하지만, 비겁한 신자들은 거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2886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3&aid=0006604835>

サントリーのCMに起用されているタレントはどのようなわけかほぼ全員がコリアン系の日本人です。そのためネットではチョントリーと揶揄されているようです。DHCは起用タレントをはじめ、すべてが純粋な日本企業です。まもなく創業50年を迎えよう

これはもう日本国民の誰もが気がついていることであると思うが、NHKは幹部・アナウンサー・社員のほとんどがコリアン系である。出演者についても、学者・芸能人・スポーツ選手の多くがコリアン系であり、ひどいことに偶然を装った街角のインタビューさえコリアン系を選んでいる。予めリストアップしているのである。特徴のある名前とつき出たあご、引きしまった小さな口元、何よりも後頭部の絶壁ですぐに見分けがつく。サントリーが日

小生のことをマスコミ(これもコリアン系ばかり)は人種差別主義者だと言うが、人種差別というのは本来マジョリティがマイノリティに対して行う言動を指すのであって、今や日本におけるコリアン系はマイノリティどころか日本の中枢をほとんど牛耳っている大マジョリティである。毎日ものすごい数で帰化人が誕生している。数だけの同族でマジョリティではなく、彼らは東大・京大・一橋・早稲田を出ていることから政界・財界・法曹界・マスコミ界という日本の中枢をすべて牛耳っている大マジョリティである。

しょう。数の力を頼って、西海岸の朝鮮人は今や市議会の中心層になっており、やりたい放題でマイノリティの日本人をいじめています。言いたい事はきりがありませんが、NHKに対してひと言感想をと言われれば、「NHKは日本の敵です。不要です。つぶしましょう。」

株式会社ディーエイチシー代表取締役会長・CEO 吉田嘉明

산토리 광고에 기용하는 텔런트는 왜일인지 거의 전원이 코리안계 일본인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촌토리라고 야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DHC는 광고 텔런트는 물론 모든 것이 순수 일본기업입니다. 2020.11

이제 일본국민들이 다들 눈치채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NHK는 간부, 아나운서, 사원 대부분이 코리안계입니다. 출연자도 학자, 예능인, 스포트선수의 상당수가 코리안계이며, 심하게도 우연을 가장하여 거리 인터뷰도 코리안계를 골라서 합니다. 미리 리스트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특징적인 이름과 튀어나온 턱, 꼭 조여진 작은 입모양, 그리고 무엇보다도 후두부가 절벽같아서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인종차별은 원래 다수가 소수에게 하는 언동을 가르키며, 지금 일본에 있는 코리안계는 소수는 커녕 일본의 중추를 좌지우지하는 거대한 다수다. 매일 엄청난 수의 귀화인이 탄생하고 있다. 숫자만 많은 동족으로 다수가 아니라 그들은 도쿄대.교토대.히토츠바시대,와세다를 나와서 정계.재계.법조계.언론계라는 일본의 중추를 전부 좌지우지 하고 있는 거대한 다수이다.

중국이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에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명백히 인종차별이다. 미국에서 백인이 다수를 점하고 있던 과거라면 흑인이나 조선인은 차별의 대상이 되었지만, 지금은 일대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차별이라고 하지 않지요. 머릿수로 이제 조선인은 서해안 쪽 시의회의 중심이 되었고 마음대로 소수자인 일본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더 많지만, NHK에 대해 한 마디 하자면, 'NHK는 일본의 적이다. 필요없다. 없애버립시다.' 2021.4



카페정보
다문화정책반대
 골드 (공개)
 카페지기 이름
 회원수 20,751
 방문수 383
 카페업수 15
 카페 가입하기

목록 | 이전글 | 다음글

자유게시판
< 다문화정책반대카페의 공식입장 및 회원 수칙 >
 국가분열다문화 추천 59 조회 5,536 12.06.13 08:00 댓글 113
 <<다문화정책반대카페의 공식

<우리의 공식 입장>

대한민국은 중국과 일본등의 초강대국들에 둘러싸여있으며,
역사적으로 외세의 침입이 빈번한바, 이를 강한'민족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극복하고
 오늘날 이만큼의 경제적, 문화적 지위를 갖추게 된 나라입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비극을 안고 있으며
언젠가 통일된 조국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반강제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소위 '다문화 정책' 이란것은,
 대한민국을 다민족, 다인종국가로 만들겠다는 정책이며,

이는 값싼 노동력을 제공받자 외국인 노동자들(동, 서남아인, 중국국적 조선족, 농민공등..)을 불러들여
 이땅의 서민들과 저임금 경쟁을 유발하여 서민경제가 파탄나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들 해외의 가족에게 송금하는 막대한 외화유출로 내수가 파탄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정착시키려는 재벌기업들의 이익을 보존하며,

4. 인종차별적 언어, 과격한 언어사용 금지합니다.

이 부분 강조하겠습니다.
 이 카페는, 인종주의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인종차별적인 요소를 부각시켜 이 카페를 '인종주의, 외국인 혐오카페'로 매도하려는 세력들에게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아울러, 회원님들의 닉네임도 인종차별적인 느낌을 주는 닉네임이나
 타 회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닉네임 사용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곳에 인종차별적 글을 올리는 경우(예: 똥남아 깡동이 원숭이 좇족 잡종 열등한 인종 등등..)와
 인종테러(무차별폭력, 스킨헤드, KKK등..)를 옹호하고 두둔하는 글을 올리는경우,
 예고없이 삭제하며, 계속 올리는 경우는
 고의적으로 카페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가입한 첩자로 간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아가페묵장 2021.06.28.

이스라엘의 동성애 실태

텔아비브에서 코로나 와중에 동성애 축제가 개최됐다는 기사를 보고 이스라엘의 동성애 실태를 알수 있는 기사를 찾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동성애 포용국가였네요... ㅠ 6월 초 예루살렘에서도 동성애...

RE 유모차의 아기까지 동성애 축제를 관람하니 경악스럽죠. 참 길으로는 평화스럽죠. ...

RE 유럽에 가보니 그들은 정말 너무나 자연스럽게 남자 둘이서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 2021.07.08.

동성애는 크리스천관점에서 어떤가요?

동성애는 크리스천관점에서 어떤가요?

RE 동성애는 극혐죄이며, 동성애자는 그 죄에서 돌이킬수 있도록 인도해야할 전도 대상...

RE 썼었던 관련 글 성애는 성경의 지지...

Mysterium fidei | 2021.05.27.

낙태는 목인, 동성애는 찬성하는 교회

이제는 서강대 총장이고 한국 예수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신부님이 동성애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교회... 예컨대 미국의 제임스 마틴 신부에 대해서는 수많은 주교들이 반대성명서를 냈고, 동성애 성향을 갖고 있지만...

RE 독일 교회에 대해 한마디 하자면 뭘러 추기경께서 한마디 해주신건 너무나도 감사하...

RE 정말로 동성애가 가톨릭교회에서 용인된다면 저는 정교회로 떠나거나 신앙생활을 더...

[앤디훅 이종격투기]UFC,헬스,종합격투기,주짓수,MMA,로드FC | 2021.05.21.

동성애자 (여자) 특징

그동안 봐온 동성애자를 곰곰히 떠올려 보면 항상 자가용이 있음. 아무래도 둘이 애자 특징이 워낙이 이력서 상의 주소는 틀림. 하지만 출근하면 항상 한대의 차로

RE 숫컷하고 웃도 남자같이 입은 페미들 간간히 보여요 남성혐오결린애들이 동성애로 ...

RE 레즈커플 본적으 누가봐도 여자인데 수

(21.7.19 15시 네이버 검색결과(카페글))

부동산 스테디 | 2021.06.19.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부탁드립니다

1명 총 24명의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에이즈는 동성애를 통해 전파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세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반대할수 없게됩니다 진짜 민주당은 암세포같은 존재입니다

RE 청원 동의했습니다. 더러운 동성애를 더러 인간들이 하던말던 신경 안쓰려했는데, 일...

RE 저도 동의했어요~~ 차별금지라는 이유로 모든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를 얽매는 법..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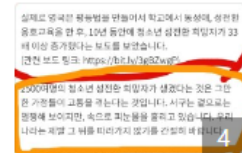
분따 분따 - 분당 판교 따라잡기 | 2021.06.21.

평등법 반대 청원 동참해주세요 (동성애 교육에 관한 법률)

+찬성하시는 분은 스킵해주세요 이름은 평등법이나 그 내용을 보시면 동성애 교육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로서 한번 읽어보시고 동의하시면 반대...

RE 차별금지법안 내용 잘 보시고 참여해주세요.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법이 정해지면 예...

RE 동의했습니다~ 말만 평등법이지 하나도 평등하지 않고 오히려 역차별하는 법이라 생...



〈표 3〉 중국동포에 대한 간주 유형 기준

유형	기준	예시
대세이익 편승자	필요에 따라 모국 혹은 조국을 한국 또는 중국으로 여기는 박쥐같은 유형	·필요할 때만 동포 발언 지경다 ·불리할 때만 동포래 ·아쉬울 땐 한국인, 잘 나갈 땐 중국인
일자리 위협자	중국동포가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했고, 그들로 인해 내국인이 일할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여기는 유형	·그들은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내세워 수많은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 ·건설현장은요, 한국어 듣기 힘들지경요, 여기가 중국인가!
잠재적 범죄자	국내에 있는 중국동포를 포함하여 중국에 있는 중국동포도 미래의 예비 범죄자로 보는 유형	·최근 모든 흉악범죄가 다 조선족인건 어찌 설명하게? ·침 안 뵈고 집 앞 쓸면 뭐하나? 결국 토막인걸
질서 미성숙자	기본적 에티켓이 없는 몰상식, 무식자로 보는 유형	·지하철에서 한국사람보다 더 시끄러운 족속이 조선족이다 ·더럽고 시끄럽고 냄새나고 쌍스러워
공생의 대상자	한국과 중국 간의 발전에 있어 가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국동포를 공생의 대상자로 보는 유형	·우리의 동포로서 인정하고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	한국 사회에서 낮은 사회적 위치에 있고 차별의 대상이 되는 중국동포를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유형	·얼마나 못 배워 먹었으면 면전에 저런 소릴 할 수 있지? 사회적 약자 괴롭히는 놈들이 제일 000같은
경제적 조력자	내국인이 꺼려하는 국내 3D산업의 노동력 부족을 채워주는 조력자로 보는 유형	·막말하는 그놈들보다 열심히 일하는 조선족 사람들이 훨씬 낫다 ·중국동포들 없으면 아마 공장 멧고 당장 중소기업들이 제일 큰 문제일 것이다.

표 4. 지역혐오댓글 유형별 조작적 정의 및 사례

유형	조작적 정의	사례
라벨링	해당 지역(민)에 고유한 이름을 붙이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ㅋ홍어ㅋ, 갯쟁이 ·감자들 요즘 많이 엽기적이네 ·경상디언 ·요즘 멧청도가 시끄럽네
스테레오타이핑	해당 지역(민)을 대상으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언급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라도에선 13범은 갸도 아님 ·인천이 살인사건의 도시네 특하면 인천
분리하기	해당 지역을 뭔가 다른 곳으로 취급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기사는 해외면에 ·다행히 한국은 아니네 휴유..... 해외 기사 잘 보고 갑니다 <경상도 = 한국 속 작은중국>
지역단순명기	단순히 지역 이름만 적어놓은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라.도 ·전라남도 목포쵸? ·역시 부산...ㅈㅈ
조롱하기	사투리홍내, 비아냥 반어법 등을 동원해 조롱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오미... 손상님 살아계실적엔 이런일 더 많았는디 ·아따 우덜이 남인가~~싸게 핑크 갔다오면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할꺼여~~우덜이 남이가 ·간만에 훈훈한 전라도 기사 잘봤습니다
기타	어떤 유형에도 포함되지 않지만 지역혐오 뉘앙스가 담긴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줄라도 김대중이 만든 여성부는 진짜 개솔모네 뭐라고 좀 시부러 봐라 여성부야 ·전라도 정권이 드디어 언론 호도 시작했네... 경상도 범죄만 집중부각 ·건원 신검 후백제 완산주 전통

주. 사례에 제시된 댓글들은 '뉴스가나 댓글'을 분석한 결과로, 네이버 범죄뉴스의 지역혐오댓글에 대한 내용분석, 한국언론학보 62(6), 2018.

↑
네이버 검색 기사의 댓글(오원춘 사건 발생 시기 고려하여 2008-2011, 2013-2016)

네이버뉴스 사건사고 섹션의 강력범죄, 절도범죄, 폭력범죄 관련 기사의 댓글 (2017) →

❖ 혐오표현의 양상

- 욕설이나 비하하는 표현
- 폭력/차별을 선동하는 표현
- 왜곡된 사실을 주장하는 표현
-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정치적 표현

❖ 혐오표현의 내용상 특징

- 표적집단의 속성이나 그 속성을 보유한 인간 자체가 흉악하거나 더러움
- 표적집단은 아동과 같이 무지하거나, 불쌍한 동정적인 존재로서 지도나 교육이 필요함
- '일반적인/정상적인/올바른' 타인들, 나아가 사회전체나 세계전체에 악영향을 미침
- 따라서 이들을 제거하거나 혹은 교정하는 것이 사회전체 이익이나 도덕성에 비추어 올바름(정당화의 과정)

Die Nürnberger Gesetze

Deutschblütiger	Mischling 2. Grades	Mischling 1. Grades	Jude	Jude
<p>Deutschblütiger</p> <p>Eltern</p> <p>Ehe geschlossen</p> <p>Kinder werden Deutschblütig</p> <p>Ehe geschlossen</p> <p>Eltern werden als Deutschblütig</p> <p>Ehe geschlossen</p> <p>Eltern werden als Deutschblütig</p> <p>Ehe nur mit Genehmigung zugelassen</p> <p>Ehe verboten</p> <p>Ehe verboten</p>	<p>Mischling 2. Grades</p> <p>Eltern</p> <p>Ehe geschlossen</p> <p>Eltern werden als Deutschblütig</p> <p>Ehe verboten</p> <p>Ehe verboten</p> <p>Ehe nur mit Genehmigung zugelassen</p> <p>Ehe verboten</p> <p>Ehe verboten</p>	<p>Mischling 1. Grades</p> <p>Eltern</p> <p>Ehe nur mit Genehmigung, 1. Grad</p> <p>Ehe nur mit Genehmigung zugelassen</p> <p>Ehe geschlossen</p> <p>Eltern werden Mischling 2. Grades</p> <p>Ehe geschlossen</p> <p>Eltern werden Juden</p> <p>Ehe geschlossen</p> <p>Eltern werden Juden</p>	<p>Jude</p> <p>Eltern</p> <p>Ehe verboten</p> <p>Ehe verboten</p> <p>Ehe geschlossen</p> <p>Eltern werden Juden</p> <p>Ehe geschlossen</p> <p>Eltern werden Juden</p> <p>Ehe geschlossen</p> <p>Eltern werden Juden</p>	<p>Jude</p> <p>Eltern</p> <p>Ehe verboten</p> <p>Ehe verboten</p> <p>Ehe geschlossen</p> <p>Eltern werden Juden</p> <p>Ehe geschlossen</p> <p>Eltern werden Juden</p> <p>Ehe geschlossen</p> <p>Eltern werden Juden</p>

Zeichenerklärung

Deutschblütiger: weißer Kreis

Mischling 1. Grades: halb weißer, halb schwarzer Kreis

Mischling 2. Grades: 3/4 weißer, 1/4 schwarzer Kreis

Jude: schwarzer Kreis

Eltern: Kreis mit Pfeil

Ehe geschlossen: Kreis mit Kreuz

Ehe verboten: Kreis mit Schrägstrich

Ehe nur mit Genehmigung zugelassen: Kreis mit Stern

Kinder werden...: Kreis mit Pfeil

Sonderfälle bei Mischlingen 1. Grades

Mischling gilt als Jude, wenn er der jüdischen Religion angehört oder sich dazu bekennt.

Mischling gilt als Jude, wenn er mit einem Juden verheiratet ist.

Mischling, der aus einer Ehe mit einem Juden stammt, gilt auch dann als Jude, wenn seine Ehe mit einem Nichtjuden geschlossen wurde.

Reichsbürgergesetz vom 15. 9. 1935
1. Verordnung vom 16. 9. 1935

Gesetz zum Schutz des Deutschen Blutes und der Deutschen Ehre vom 15. 9. 1935
1. Verordnung vom 16. 9. 1935



우리와 "그들"

<페이스북 커뮤니티 가이드>

혐오표현: 인종, 민족, 국적
 체적 장애 또는 질병과 같
 하는 것

<표 5>

구분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각적 콘텐츠 또는 •다음에 관한 비교나 일 는 이미지: 별레, 문화적으로 지적 질병, 배설물, 성범죄 •실제 사람이 이미지에 조롱함 등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과 같은 방법으 신체적 결함(위생, 신체 덕적 결함, 문화적으로 어, 기타 •다른 보호되는 특성보 한되지 않음: '남성 •경멸이 담긴 표현이 보호되는 특성을 기반 주의자를 포함하되 이 •욕설. 예: 대상을 칭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별 유도 •명시적 제외: '제명' 또는 •정치적 제외: 참정권의 •경제적 제외: 경제적 지 •사회적 제외: 공간(온라인 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콘텐츠를 게시하는 경우

콘텐츠의 목적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콘텐츠를 YouTube에 게시하지 마세요.

- 앞서 언급된 특성을 문제 삼아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을 조장합니다. (YouTube에서는 위협을 허용하지 않으며 목시적으로 폭력을 조장하는 행위를 실질적인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part 1** **Contents** **괴롭힘**에 관한 YouTube 정책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 앞서 언급된 특성을 문제 삼아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조장합니다.

예

다음은 YouTube에서 허용되지 않는 증오심 표현의 예입니다.

- '이런 [폭력 사건]이 일어나서 기쁩니다. [앞서 언급된 특성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며] 그들은 그런 일을 당해도 싸죠.'
- '[앞서 언급된 특성을 가진 사람]은 개입니다' 또는 '[앞서 언급된 특성을 가진 사람]은 동물과 같습니다.'

예시 더보기

- '밖으로 나가서 [앞서 언급된 특성을 가진 사람]을 한 대 치세요.'
- '[앞서 언급된 특성을 가진 집단]은 모두 범죄자이며 폭력배입니다.'
- '[앞서 언급된 특성을 가진 사람]은 인간쓰레기입니다.'
- '[앞서 언급된 특성을 가진 사람]은 암과 같은 존재입니다.'
- '[앞서 언급된 특성을 가진 사람]은 뇌가 엄청 작아서 우리보다 멍청합니다.'
- '[앞서 언급된 특성을 가진 집단]은 우리의 존재에 위협이 되므로 가능한 한 몰아내야 합니다.'
- '[앞서 언급된 특성을 가진 집단]은 세상을 지배하고 우리의 자리를 뺏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 '[앞서 언급된 특성]은 치료가 필요한 정신 질환의 한 형태입니다.'
- '[앞서 언급된 특성을 가진 사람]은 교육을 받을 자격이 없으므로 학교를 다니면 안 됩니다.'
- '이 폭력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두 연기일 뿐입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며 거짓말에 지나지 않아요.'

여기에 나온 내용은 몇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이 정책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콘텐츠를 게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단지 기분 나쁘고 불편한 말인가?

올해 여성이 나를 무시해서, 또는 여성을 혐오해서 살인했다고 범행 후 범인이 범행동기를 말한 사건이 강남역 살인사건 말고도 더 있었잖아요. 수락산, 사패산 살인사건인데요. 그 때 산행하다가 50, 60대 여성 두 분이 돌아가시고서, 제 주변에서 “산에 안 간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한 번씩 답답하면 산에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무서워서 가벼운 동네 산행조차 안 하게 된다”는 여성들이 많아졌죠. -사례 B 여성

진짜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저 사실 어렸을 때 기억이 잘 안나요. 진공상태 같죠..... 아직도 굉장히 악몽을 많이 꾸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소리를 막 지르면서 깨요. 꿈에서는 저희 아버지가 항상 반복해서 하셨던 어머니한테 했던 말 ‘창녀 같은 년’, 그런 욕설이 나와요, 이제 그게 계속 반복해서 꿈에 나오는걸 보서는 ‘언어폭력이라는 게 무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례 A 여성

(한국인들이) “어디서 왔느냐, 종교는 뭐냐”고 묻고는, “아내가 몇 명이나” 이런 말을 불쑥 던지고 “밤생활은 어떠하냐”고 계속 묻기도 하죠. 이런 말 말고도 많이 있어요. 이주민은 남자든 여자든 성희롱 당하는 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성희롱을 당해요.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환경에서 살면서 싼 임금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런 환경에 있으면 충격과 고통을 쉽게 받아요. 그렇지만 이주민 남성은 이런 거 다 털어놓고 이야기는 못 하죠. 남자니까, 센 척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주민 남성은) 이십대 초반 이렇게 나이가 어린 상태에서 한국에 오니까 혼자서 울고 견디는 거죠.

-사례 H 이주민

제가 가장 상처를 받은 것은 애들 관련한 문제 때문인데요. 큰 아이 ○○(I의 자녀)가 같은 반 아이들에게 맞던 날, 담임선생님이 그날 출근을 안 했고 학교에서는 대체 선생님도 안 보내줬고 그런 상황에서 애들만 있게 됐는데. 애들끼리 투표를 한 거예요. 가장 재수 없는 애가 누구냐는 거랑, ○○(I의 자녀) 때릴래 안 때릴래. 이걸로 투표했는데, 때리자는 표가 더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애들 14명이서 같이 ○○를 때렸어요. ○○가 병원에 있다고 와이프한테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가는데 정말로 마음이..... 화가 났죠.

-사례 I 이주민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저 살아가는 모습을 용기를 내서 보여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많은 이들이 본 것 같더라고요. 뉴스도 나고. 뉴스 기사에 댓글이 올라와서 봤는데 댓글을 보니 "난쟁이가 욕심도 많다".....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더 이상 댓글을 보지 않아요. 제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말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는구나 싶어요. 지쳤어요. -사례 N 지체장애인 여성

댓글을 보니까 "네가 장애인하고 살아봤냐, 얼마나 위험한 줄 아냐", "내 자식이 왜 장애인과 같이 살아야 하냐, 짹짹하다", "문제가 생기면 네가 책임질 거냐"라고 장애인을 '같이 살 수 없는 존재, 위험한 존재'라고 분명히 써놓았더라고요. 실제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혐오가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보여주죠. 온라인은 파급력도 더 크고 그냥 맞는 말인 것처럼 쓰여 있으니까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상당히 문제죠.

-사례 M 지체장애인 여성

친구가 겪은 일인데 퀴어퍼레이드가 열렸을 즈음인데 직장에서 동료들이 뉴스를 보고 성소수자가 화제에 오른 거예요. 그때 동료들이 “만약 내 옆에 ‘저런 것들’이 있으면 다 때려 죽이겠다”는 말을 했다고 해요.

-사례 C 게이의 목격 사례

저는 민원도 제기하고, 교직원평가 때도 익명으로 항의하는 내용을 쓰기도 했죠. 그렇게 하니깐 선생님께서 수업 때 해명을 하시는데, “동성애 지지하는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친구에게는 미안하다. 그런데 실은 내 친척 애가 트랜스젠더라고 커밍아웃을 했는데, 성전환수술을 안 하면 죽을 것 같다고 했다더라. 부모가 그런 일을 겪는 걸 보고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면서 “너희는 그러지 말라, 그런 건 불효라고 말하고 싶었다”라고 하시는 거죠. 결과적으로 똑같았어요.

-사례 R 청소년 성소수자

제가 학교를 가고 오는 길에 그런 홍보물이 붙어 있는데, ○○교회 주변에도 많이 붙어 있었어요. 그게 정말 많아서 학교 오갈 때 마다 그걸 보면. 아..... (말 잠시 멈춤) 화가 나면서, 무력하다고 해야 하나. 되게 무력감을 느꼈어요. 일단 제가 치울 수는 없으니까. 무력감이 꽤 오래 남아 있었어요. 저는 주변에 커밍아웃을 꽤 많이 한 편인데도, 소외감이 느껴지고. ‘나의 편이 되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죠. 학교 앞인데 학생들이 다 볼 수 있잖아요. 누군가는 무의식중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사례 R 청소년 성소수자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2016)> 중

심리적 두려움, 슬픔, 지속적인 긴장감, 자존감 손상, 소외감, 무력감. 일이나 학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회적 영향도 발생.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

(온라인: 장애인 58.4%, 성적 소수자 57.8%, 기타여성 51.0%, 오프라인: 장애인 58.8%, 이주민 56.0%, 성적 소수자 49.3%)



<https://brunch.co.kr/@travelandmap/55>

<https://blog.naver.com/sawtiger/221756815496>

혐오표현의 해악성 (규제 필요성)

표적집단 구성원의 존엄성 침해

지속적, 경험적으로 장기간의 차별을 받아온 특정집단에 행해지는 것으로써 혐오표현의 대상은 주로 사회적 소수자로 인지되고 있는 집단구성원들임. 표적집단 구성원에게 공포감, 위축감, 좌절감, 내면의 자기부정을 야기

공론장의 왜곡

혐오표현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외현화되는 표적집단에 대한 차별적 환경 하에 표적집단 구성원은 공론장에서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는 데 두려움을 가지게 됨 → 표적집단 구성원이 공론장에 참여할 실질적 기회를 박탈

표적집단 구성원을 침묵시키는 한편, 다른 사회구성원들이 몸담고 있는 공론장 전체에 표적집단에 대한 적대적 사상을 만연시킴 → 공론장의 토론문화 왜곡

표적집단 구성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영속적인 불평등

표적집단 구성원의 인격을 저해하고 공포감을 심는 것으로 인해 표적집단 구성원에게 자기부정과 자기비하가 내면화될 때 표적집단 구성원들은 차별 받는 상황을 납득하고 정당화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음

다른 표적집단 구성원에 대한 차별의식을 강화시켜 자신의 취약성과 배제의 상황을 전복시키려는 현상 발생

사회전체에 있어서 표적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의 확산은 표적집단 구성원이 차별에 노출된 일상생활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함

혐오표현으로 인한 공론장의 왜곡은 정책과 제도상의 불평등을 촉진하거나 혹은 불평등 방지 및 시정을 회피하게 만들

❖ 이와 같이 혐오표현이 해악의 효과로서 차별의 내면화, 일상의 차별 및 제도적 차별은 상호 연계되거나 결합되어 나타나며, 모든 층위에서 표적집단에 대한 평등의 실현을 방해함

❖ 이상과 같은 혐오표현의 해악성은 표적집단 구성원의 기본권 보호와 민주주의 원리 실현이라는 헌법적 요청하에서 국가로 하여금 이를 억제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정당성이 인정됨

정책 및 제도에 미치는 영향: 차별 철폐와 인권 관련 입법의 진통들

-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지속적인 유엔조약기구의 권고: 국가별인권상황정례 검토(2008년, 2012년, 2018년), 사회권규약위원회(2009년, 2017년), 자유권규약위원회(2015년), 인종차별철폐위원회(2012년, 2019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2011년, 2018년),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2011)
- 국내 흐름
 - 2006.7.25 국제인권법규의 실천 및 참여정부 국정과제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권고법안 및 제정 권고. 재계와 보수개신교계의 반대에 직면한 이후 국회와 정부의 법률안 제안의 부침 지속

제안일시	제안 법률안	비고
2007.12.12.	차별금지법안 (법무부)	
2008.1.28.	차별금지법안 (노회찬의원 등 10인)	시민단체안 반영
2011.9.15.	차별금지기본법안 (박은수의원 등 11인)	
2011.9.15.	차별금지법안 (권영길의원 등 10인)	시민단체안 반영
2012.11.6.	차별금지법안 (김재연의원 등 10인)	
2013.2.20.	차별금지법안 (최원식의원 등 12인)	철회(2013.4.24)
2013.2.12	차별금지법안 (김한길의원 등 51인)	철회(2013.4.24)
2020.6.19	차별금지법안 (장혜영의원 등 10인)	계류중
2021.6.16	평등에 관한 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24인)	계류중
2021.8.9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3인)	계류중

- 인권조례가 최초로 제정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243개 지역(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 인권조례, 전수조사 결과 99개 조례가 총 124번의 무산(60개, 78번), 개악(성소수자 권리 보호 조항을 삭제하거나 인권 보호 조항을 연성화), 폐지되었음
- 반대운동 주체는 보수개신교회, 반동성애단체, 보수성향 시민단체로 2017년 조례반대운동 조직화 이후
- 기본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문화다양성조례, 성평등조례를 무산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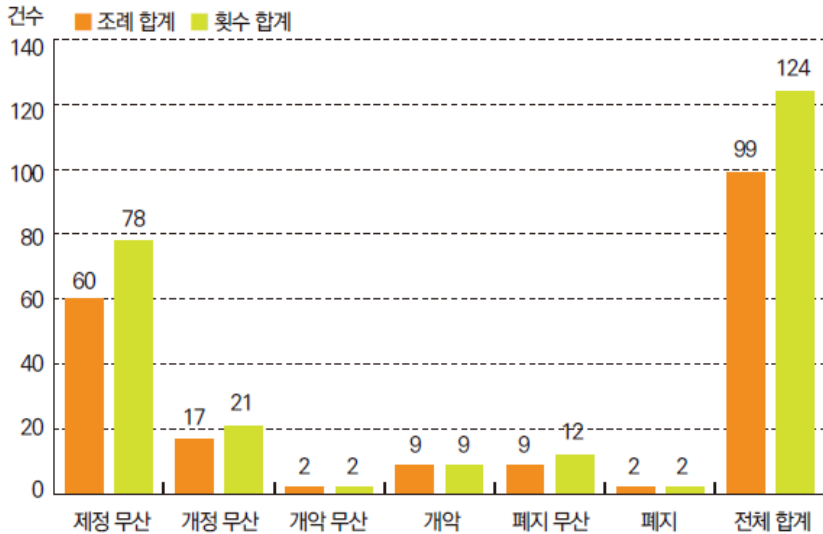


그림 3. 상태별 인권조례 및 관련 조례 무산, 개악, 폐지 현황

"서구에서 소수자의 인권이란 이름으로 건전한 사람들의 인권이 탄압당하고 벌금, 징역 등의 처벌을 받는 것은 외신을 통해 접하지 않았습니까?... 동성애를 옹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영향이 강화될수록 건전한 윤리관을 가진 시민들이 역차별을 받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는 건전한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2018년 12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 제8대 제274회 제3차 본회의)

"...우리들의 자녀가 개성을 실현하기 위해 문신도 하고 짙은 화장을 한다면, 미성년인 학생이 학교에서 집회를 하고 학교 안팎에서 정치활동에 참여한다면,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한다면, 임신했다고 해서 차별받지 않는다면 성적인 측면에서 자유로워진다면 어떻게 처신하시겠습니까?...지금 학생들이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불장난의 사랑으로 실수한 결과가 나중에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을 때 학생 때 낳은 자식들이 찾아오면 잘살고 있는 가정들이 파탄으로 이어질 또 하나의 큰 사회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지금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주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2011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의회 제8대 제235회 제6차 본회의)

"...제가 알기로 아랍계가 인구의 4%를 차지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회가 폭동으로 치닫는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내용이 되고. (중략)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상한 풍습이 많아요, 민족마다. 그런 것이 굉장히 많고 엽기적인 것도 있고 이래요."(2019년 4월 24일 부천시의회 제8대 제235회 제1차 재정문화위원회)

현행법상 혐오표현의 규제 가능성

현행법	한계
「형법」상 모욕죄	- 보호법익이 사회적 평가 저하(인격적 평가 저하가 아니므로, 표적집단에 대한 낙인찍기를 승인하는 효과가 발생) - (개인들을 특정할 수 없는) 집단에 대한 모욕죄에 적용 불가
「형법」상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법정보 등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의 근거법률, 해당 규정의 내용, 적용상 문제점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성희롱	성희롱과 중첩되는 혐오표현에 한정 적용가능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괴롭힘	적용을 위한 구체성 결여, 진정에 대한 인용건수 크지 않음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3.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바.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정보통신망법 상 유해정보 중 ‘차별·비하’ 심의통계>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심의	752건	861건	1,184건	3,022건	1,356건	2,638건	1,886건	1,580건	1,369건
시정 요구	622건(82.7%)	723건(84.0%)	891건(75.3%)	2,455건(81.2%)	1,166건(86.0%)	2,352건(89.2%)	1,406건(74.5%)	473건(48.4%)	308건(46.1%)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와 그 한계

-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의 실효성: 혐오표현 억제의 효과가 있는가?**
-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가 현시대의 한 시점에서 혐오표현 규제는 혐오표현의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지 모르나, 장래에까지 그 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음
- 보다 근본적으로 혐오표현을 발생시키는 표적집단에 대한 제도적·구조적 차별을 철폐하고 사회에 만연한 차별의식을 개선시킴으로써 표적집단이 더 이상 표적집단이 되지 않아도 될 환경을 만드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임
- 특히 한국은 권위주의 정부 시대의 표현규제 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경험, 현재에도 표현규제 법률 다수 존재함. 표현의 자유 제한의 목적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 급격한 경제적·사회적 변화, 양극화의 심화, 집단갈등의 심화: 차별에 대한 인식과 그 효과에 대한 이해, 시민적 관용의 성장이 필요함
- **법적 규제 시의 유의점**
-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의 조건과 유의점: 기존의 일반적인 명예훼손 및 모욕 표현과 구분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혐오표현의 유형·전달매체·성질·발화자의 지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함. 혐오표현이 정치적·정책적 표현의 형태를 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대항언론에 대한 적용으로 이어져서는 안 됨
-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을 표적집단 구성원의 인격권 vs. 혐오표현을 하는 자 혹은 그러한 사상을 가진 자의 표현의 자유 간의 충돌로 한정하여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공인의 혐오표현, 언론기관의 혐오표현은 혐오표현의 해악성이 강력할 수 있는 동시에 그 제한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도 커짐에 유의함

혐오표현 억제를 위한 국가적·시민적 대응

- 혐오표현 대응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이는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가 유효하게 기능하기 위한 정책적 선결조건이므로, 법적 규제 도입과 무관하게 이행되어야 할 과제임
- 교육과 캠페인: 학교교육과 시민교육. 형식적이고 표면적인 내용이 아니라, 표적집단인 소수자의 삶과 정체성에 대한 이해 및 사회에서 접하는 일상의 차별에 대한 경험적인 교육이어야 함. 다른 한편, 규제주체인 국가기관과 공직자에 대한 인식교육 및 국가기관과 공무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도 병행
- ✓ 혐오표현에 근원에 있는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은 한번 고정되면 쉽게 변화되지 않는 인식이기 때문에 가치관이 형성되어 나가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교육은 차별을 근저에 둔 혐오표현이 감소하는 미래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임
- ✓ 시민교육과 캠페인은 사회구성원에게 혐오표현의 개념과 해악성을 인지시킴으로써 일상적인 혐오표현을 자발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옴
- 대항언론 활성화: 대항언론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표적집단이 대항언론을 일상적으로 행할 수 있을 정도의 스스로의 역량과 주위의 지지기반이 필요함. 예를 들어 표적집단이 공론장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증대하기 위해서 시민사회에서 모일 수 있는 물리적 공간, 관련 단체에 대한 물질적·금전적 지원을 통한 추상적 공간의 확보를 위한 정책 대응이 유효함
- 자율규제: 시민사회의 각 영역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혐오표현을 포함한 차별의 억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제정과 실행의 권장
- 제도적 차별철폐와 차별철폐를 위한 제도적 대응: 기존의 차별적 제도를 철폐하는 동시에, 사회적 차별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ex. 차별금지법, 소수자할당제

원숭이 두창 감염병 주의

WHO가 쿼터페이드가 원숭이 두창을 확산시켰다고 경고했다?

WHO, 질병관리청, CDC 발표 내용을 검토해보니...

더 알아보기 >

최신평택 | 언론사 선택

공지사항

안상훈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입학 연령 하향 추진은 세계적 흐름이다

출처: 쿡, 교육부에 "만5세 입학 공론화-초당적 논의 촉진 역할" 지시



여성경제신문

인터넷 커뮤니티
기타

강남 물난리, 빗물펌프장 반대한 학부모들 때문이다

출처: 클리앙, 강남물난리 자업자득, 학부모들 반발에 갈 곳 없는 '빗물펌프장'



OhmyNews

alookso

대협오시대

민주주의의 미래 +2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동성애는 하늘의 뜻에 반하기 때문에 엄벌을 해야 한다."

● 혐오표현이다 ● 혐오표현 아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선천적 장애인도 의지가 약하지만, 사고로 장애인이 된 분들은 원래 정상적으로 살던 것에 대한 꿈이 있어 의지가 강하다고 들었다."

● 자율규제 해외 사례와 가이드라인(안)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 가이드라인>(Mogens Blicher Bjerregård, EFJ President)

1. 자율규제. 언론윤리에 대해 국가가 판단하게 두지 마라. 검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언론을 통해 혐오표현이 확산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져라.
2. 내용을 검열하지 마라. 하지만 언론의 다양성 증진을 지원하라. 이를 통해 언론의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 선전 언론을 줄이면 혐오표현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3.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빠른 주의를 이루어질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정보와 좋은 실천사례를 공유하라.
4. 혐오표현의 피해자를 내버려두지 마라. 피해자가 온라인에서 경험하는 욕설과 위협을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헌신적인 동료들이 있음을 알려라.
5. 혐오표현을 받아들이지 말고 매번 신고·보도하라.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해서 오프라인 상 위협에 바로 반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국에 신고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라.
6. 혐오표현의 피해자를 확인한 경우, 고용인과 그에 상응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항상 진지하게 접근하고 확실하게 행동을 취하여야 한다.
7. 혐오표현은 국경을 넘어 발생하므로 국제사회에서 활동하는 작가, 언론인, 언론기관은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공동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야 하며, 특히 소셜미디어에 대한 대응도 포함해야 한다.
8.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소유주나 편집자와 소통을 시도하라.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해 연대할 책임이 그들에게도 있다.
9. 혐오표현을 발신하는 자가 특정되면 그가 개인이든 단체나 기관이든 간에 이에 대응하고 소통을 시도하라.
10. 미디어 리터러시.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 특히 온라인 댓글을 통해 뉴스를 접하고 있다. 대학과 학교언론에서 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교육영역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

<http://europeanjournalists.org/mediaagainstthate/guidelines-for-counteracting-online-hate-speech>

<영국 Dulwich Hamlet Educational Trust> **체크리스트**

- 학생의 학업성취, 출석률, 직원교육 등의 영역에서 인종, 장애, 성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수집한 정보가 학교의 정책, 계획, 실천, 수업, 지원, 교육활동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까?
- 평등권 규정의 수립 시, 학생과 보호자, 직원들의 의견제시 및 참여가 반영되었습니까?
- 학생의 학업성취도는 인종, 장애, 성별에 따라 분석되고 있습니까? 데이터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이나 조치의 필요를 판단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 학교의 교육과정에는 인종, 장애, 성에 따른 평등이나 차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모든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 받고 있습니까? 학교의 다양성을 위해 학생들이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습니까?
- 인종, 장애, 성별에 따른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받는 학생이나 직원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다른 학생들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조치되고 있습니까? 인종차별적인 사건이 정기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까?
- 시각자료의 사용은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수업 등에서 소수민족, 장애, 동등한 성역할 등은 긍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 인종, 장애, 성차별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Black History Month, Deaf Awareness Week 및 One World Week 등의 연례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 학교는 모든 학생과 직원, 방문자들이 접근하기 쉽습니까? 저녁 시간 등에 열리는 행사는 학부모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언어 장벽 등의 문제가 고려되고 있습니까?
- 인종, 장애, 성별 등의 영역에서 학교의 모든 정보나 게시물 등이 학부모나 학생, 직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 학부모 운영위원 선거에 관한 절차가 장애인인 후보자나 유권자에게 열려있습니까?

<http://www.dulwichhamletjuniorschool.org.uk/policies-and-reports.html>

- ❖ 내가 가진 편견 찾아보기
- ❖ 사회의 차별 의식과 차별적 제도 찾아 보기
- ❖ 인간의 다양성을 이해하기
- ❖ 소수자 친화적 환경과 경험 쌓기

- ❖ 왜곡된 정보 가려내기
- ❖ 혐오표현에 함께 대응하기
- ❖ 자긍심을 갖고 서로 연대하기



정연구 "군 생활 통해 진짜 한국인 된 기분" (23세-하사-도미니카 어머니)
 오지수 "다문화 배경은 나의 경쟁력, 국민으로서 병역 의무 다하는 점 부듯" (20세-일병-필리핀 어머니)
 정우철 "나는 한국에서 나고 자란 한국인, 남동생들도 곧 입대" (22세-상위-일본 어머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눈에 보는
2020 장애인 통계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2.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다만, 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나. 삭제 <2010. 7. 21.> (개정전: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
 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라.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민법」 제779조 및 제974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없는 사람
 마.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바. 「국적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사. 삭제 <2011. 11. 23.> (중학교 퇴학)
 아.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내국인 규모 (2019년)
 9년 장애인등록제도 시행, 이후 30년

장애인 수 **618,918** 명
 등록장애인 비율 **5.05%** (2019년 1만)

노동시장 취업상황 (2020년)

구분	장애인	전체인
취업자 1주 취업시간	36시간	39시간
취업자 단순노무종사 비율	27.8%	13.7%
임금근로자 비정규직 비율	59.4%	36.3%

터너증후군

질병정보 | Turner's syndrome | Turner syndrome

전체

기본정보

증상

원인

치료

동영상

함께 많이 본 질병



기본정보

주요 증상 저신장, 조기 난소 부전, 관련 신체기관 척추, 눈, 귀, 골격, 관련 질병 Turner syndrome, Monosomy X, Schereshevskii turner syndrome

핵형 45, X는 여성에서 발생하는 염색체 이상으로, 저신장, 조기 난소 부전, 이차 성징 발현 지연 등이다. 여성 2,000-2,500명 중 한명이 이환되는 희귀질환이다.

희귀질환정보

식도, 소장, 생식기

관련 질병 다운증후군, 21삼염색체증, 18삼염색체증, 13삼염색체증, 12삼염색체증, 9삼염색체증, 11삼염색체증, 15삼염색체증, 17삼염색체증, 19삼염색체증, 20삼염색체증, 22삼염색체증, 21세

21 삼염색체증(trisomy 21)은 다운증후군으로, 21번 염색체 이상 질환으로 정상적으로 태어났을 때 1,000명 중 한명 정도 발생한다. Langdon Down이 그 특징을 처음 묘사했다.

희귀질환정보

클라인펠터증후군

질병정보 | Klinefelter's syndrome | klinefelter syndrome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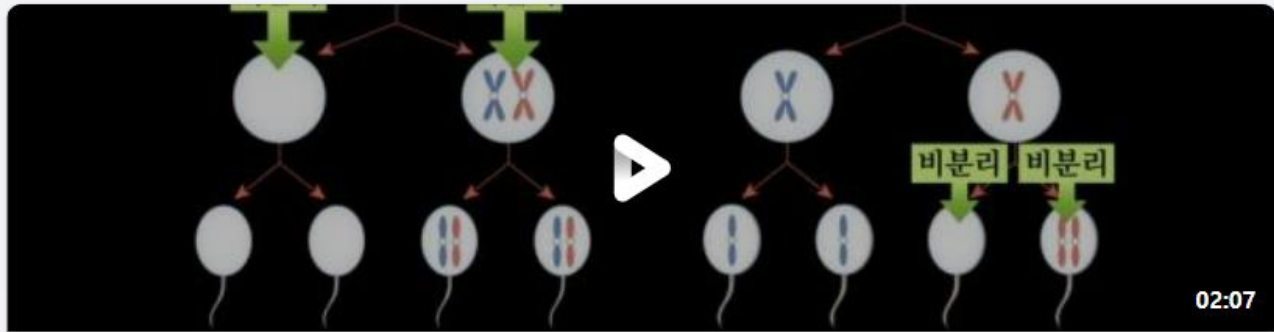
기본정보

증상

원인

치료

함께 많이 본 질병



02:07

기본정보

관련 신체기관 고환, 유방

진료과 비뇨의학과, 소아청소년과

관련 질병 선천성 기형, 불임, 여성형 유방

일반적으로 남자의 염색체는 46,XY지만 X염색체가 1개 이상이 더 존재할 때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 한다. 염색체 형태는 47, XXY, 48, XXXY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Intersexion: Boy or Girl? (Intersex Documentary)

Intersexion: Boy or Girl? (Intersex Documentary) | Repl. Stories
<https://www.youtube.com/watch?v=czbQRjdGvYQ>



인권위, 서울.광주.경기.전북 교육청과 혐오표현 공동대응

담당부서 혐오차별대응기획단 | 등록일 2019-11-18 | 조회수 1742

파일첨부 191115 인권위, 서울 ? 광주 ? 경기 ? 전북 교육청과 혐오표현 공동대응(혐오차별대응기획단)-개제.hwp [바로보](#)

인권위, 서울.광주.경기.전북 교육청과 혐오표현 공동대응 - 국가행정기관 최초 혐오표현 대응 공동선언식 개최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1월 15일 오전 11시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김승환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감과 함께 국가기관 및 행정기관 최초로 혐오표현 대응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다.

- ⑥ ○○ 지역 출신이 많은 곳은 민원이 심하다.
- ⑦ 나중에 정상적으로 결혼하고 잘 사는 사람들도 많다!
- ⑧ 보호자와 다시 오세요
- ⑨ 수급자들은 다 그래
- ⑩ 어머니! 아줌마!
- ⑪ 나이도 어린데 참 장하다!
- ⑫ 한국에 빌붙어 사는 주제에 이따위 범법 행위를 하나?
- ⑬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막달
- ⑭ 서울광장 쿼어행사는 음란한 행사다
- ⑮ 페미니즘은 정신병



[뷰티풀마인드 오픈공지]

언어에 둘러오는 부고 소식, 정치권에서의 혐오 발언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지만, 이와는 다른 방식인 마음지원 또한 급히 필요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에 비온뒤무지개재단은 활동가 마음지원사업 <뷰티풀마인드>를 작년보다 <뷰티풀마인드>는 혐오와 차별에 맞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정신건강을 공위하여 만들어진 지원사업입니다. 전문가에게 마음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싶

“혐오와 증오는 느닷없이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고 양성된다.” (카롤린 엠케, <혐오사회>)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은 말하기의 무능을 낳고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 그는 다만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했던 것”
(한나아렌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1963)

“타인의 고통은 쉽게 간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고통을 가할 수도 있고, 이미
(일레인 스캐리, <타자를 상상하는 일의 어려움>)